

신안군, 흑산 비리 마을 어업인 쉼터(편익시설) 준공식 개최

당초 사업비 1억2천5백만원에 군비 9천5백만원 추가 부담 어업인을 위한 공동작업장·휴게소 등 주민 편의공간 제공

신안군은 지난 17일 흑산면 비리 어업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준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당초 사업비는 1억 2천 5백만 원(도비 80%, 군비 20%)이었으나, 전라남도가 제시한 표준 모델인 철골 구조물에서 흑산도를 자주 지나가는 태풍, 강풍과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군비 9천 5백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 철근콘

크리트 구조로 설계 변경, 총 2억 2천만 원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완성하였다. 비리 마을 어업인 쉼터(편익시설)는 건축면적 56.16㎡(17평)으로 마을공동작업장과 휴게실, 남·여 화장실 1개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작업 이후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게 폭 8m가 넘는 넓은 창과 벽체는 흰색, 지붕은 코발트 블루색으로 마감해 지중해 휴양지에서 휴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비리 마을은 작은 마을이지만 마을공동작업장에 어업인이 쉴 수 있는 쉼터까지 지어놓으니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어 기쁘고, 천혜의 비경 감상과 휴식을 통해 섬에서 살아도 행복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잘사는 신안을 만드는 것이 신안의 목표”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신안군에는 현재 27개의 어업인 쉼터(편익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4개가 건립중에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영광군, 전국 재난관리평가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선정’

영광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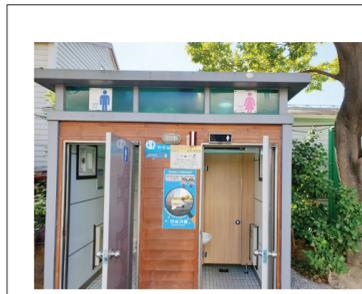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6개 분야 34개 지표에 대한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이다.

영광군은 안전관리계획의 재정투자,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 총량 등 재난안전 분야 재정관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방역, 산불, 공사장 안전사고 등 유형별, 다중밀집건축물, 다중생활시설 등 시설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및 자체적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비 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관리를 위해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과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재난정보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하는 등 재난대비·대응태세 확립분야에서도 인정받았다.

또한, 영광군은 재난관리 자원 긴급 동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방자재 등 선제적으로 확보해 재해대응역량을 강화했으며, 하천 재해복구 사업을 통해 기능 복원뿐만 아니라 개선복구사업을 통해 추후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조성 완료

공중화장실 4개소 리모델링, 64개소에 범죄 예방시설물 설치

목포시가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공중화장실 범죄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9~10월 2개월 동안 노후 공중화장실 4개소(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앞, 북항주

차장, 북항노출공원, 문화예술회관 앞)의 위생기구를 물절약형으로, 조명을 LED로 각각 교체했다. 이와 함께 바닥타일을 새로 깔고, 화장실 칸막이도 새것으로 바꾸는 등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또한 목포경찰서와 협력해 공중화장실 64개소에 범죄 예방시설물인 안심스크린, 안심거울을 설치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워크숍 성료

영암군은 지난 19일 영암군민회관에서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영암군 장기요양기관협의회(회장 강춘석)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급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에게 품격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제도의 변동사항, 자주 발생하는

노인 인권침해 사례 소개에 이어 노인·장애인 확대 발생 시의 신고요령, 확대 피해 어르신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 등을 교육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항상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는 돌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이 새로운 지식 충전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

무안군이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최근 불법광고물실명제 미이행 불법 유동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시가지 가로수와 전봇대에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통행 방해, 거리경관 저해하는 등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철거 전담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민간광고물단체가 협업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6,139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또한 주요 교차로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개인 상업용 간판 등 개별 불법지주간판을 일제히 조사해 통합지주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해 미관 향상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수년간 방치된 국도2호선과 서해안 고속도로상 불법지주이용간판의 광고물 관리책임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자진철거하고 제거도 록 위반사항을 통보해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 2건도 정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보건소, 중고등학생 흡연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함평군이 지역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함평군은 “관내 중·고등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흡연예방 프로그램 ‘골든벨·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흡연예방 매직쇼, OX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금연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또한 체험존, 퀴즈존, 예뻐준 등 학년별 연령에 맞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